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Friday 5 November 2010 (afternoon)
Vendredi 5 novembre 2010 (après-midi)
Viernes 5 de noviembre de 2010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엄마를 부탁해

두통은 너의 엄마를 잡아먹는 듯했다. 너의 엄마는 급속히 활달함과 생기를 잃고 누워있는 일이 많아졌다. 몇 안 되는 즐거움이던 백 원짜리 화투치기에도 너의 엄마는 집중할 수가 없는 듯했다. 더불어 너의 엄마는 모든 일에 무감각해졌다. 한번은 행주를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도 너의 엄마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다. 빨래를 삶는 솥이 바

5 짝 놓고 급기야는 행주가 타서 부엌이 연기에 잠기는데도 너의 엄마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연기가 치솟는 걸 보고 옆집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집이 불타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이를 셋 낳은 여동생은 두통 때문에 고통 받는 엄마를 두고 너에게 엄마가 진짜 부엌을 좋아했을까 언니? 진지하게 물었다.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하자 너의 동생

10 은 어쩐지 엄마가 부엌을 좋아했을 것 같지 않아,라고 말했다. 약사인 여동생은 첫아이를 임신한 채로 약국을 개업했다. 아이를 돌봐주던 올케는 약국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다. 태어난 아이는 얼마간 올케 집에서 자랐다. 아이를 좋아하는 너의 여동생은 일주일에 한번씩밖에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태를 감내하면서까지 약국 운영을 계속했다. 여동생과 아이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장면은 애절했다. 생이별도 그런 이별이 없었다. 아이보다는 엄마인 너의 여동

15 생이 더 문제 같았다. 아이는 그럭저럭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는데 엄마는 주말에 아이를 데려왔다가 다시 올케 집에 데려다 주고 올 때면 운전대를 잡은 손등이 축축이 젖도록 울어서 월요일엔 눈이 툭툭 부은 상태로 약국에 서 있곤 했다. 그러면서까지 약국을 해야 하니? 네가 말릴 정도였다. 너의 여동생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도 계속 운영하던 약국을 접은 건 너의 제부가 연수를 받기 위해 이년 기한으로 미국으로 건너갈 즈음이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20 경험이 될 것 같으면서 서울의 모든 살림을 접고 미국으로 간다기에 너의 속으로 그래 미국에 가서 좀 쉬었다가 와라, 했다. 결혼하고 한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 여동생이었다. 너의 여동생은 미국에서 아이 하나를 더 낳아서 귀국했다. 자신까지 다섯 식구의 밥상 차리는 일이 여동생의 손에 달려있었다. 여동생은 한달 동안에 조기 이백 마리를 먹은 적도 있다고 했다. 이백 마리를 한달 동안? 매일 조기만 먹었니? 물으니 그렇다고 했다. 미국에서 부친

25 살림이 도착하기 전이고, 새로 이사한 집이 낫설기도 한데다 젓을 먹는 아이가 곁에서 떨어지길 않으니 시장에 갈 틈도 없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간해서 살짝 말린 조기 새끼를 껌짝으로 보내왔는데 열흘도 되지 않아 다 먹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콩나물국 끓여서 조기 구워 내놓고 호박국 끓여서 조기 구워 내놓고 했어, 여동생이 웃었다. 조기를 더 구하고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조기를 파는 데를 알아내고 보니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가능한 곳이었다고 했다.

30 한 껌짝을 그리 빨리 먹어버려서 두 껌짝을 주문했다고 했다. 배달되어온 조기를 씻으며 세어보니 이백 마리였어, 씻어서 한번씩 구워 먹기 편하게 네땀 마리씩 비닐에 싸서 냉동고에 넣어놓을 요량으로 개수대 앞에서 조기를 씻다가 조기를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어, 여동생이 담담히 말했다. 문득 엄마 생각을 했어, 엄만 그 재래식 부엌에서 평생 대식구의 밥을 짓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했어. 우리가 또 오죽이나 식탐이 많아? 생각나? 밥상을 늘

35 두 개씩 차려야 했잖아. 밥 짓는 솥도 얼마나 컸어? 그 시골 반찬으로 우리들 도시락까지

다 싸야 했으니……. 엄마 그걸 어떻게 매일매일 감당했을까? 게다가 큰집이라서 늘 군식구들이 두엇은 붙어 있었잖아. 엄마가 부엌을 좋아했을 것 같지가 않아. 너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있다가 무연해졌다. 너는 엄마와 부엌을 따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부엌이었고 부엌은 엄마였다. 엄마가 과연 부엌을 좋아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신경숙 , <엄마를 부탁해>, 2008)

2.

나비의 여행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하늘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수면(睡眠)의 강(江)을 건너
 빛 뿌리는 기억(記憶)의 들판을,
 5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날으다가
 캄캄한 절벽(絶壁),
 헤어날 수 없는 미로(迷路)에 부딪히곤
 까무라쳐 돌아온다.

한장 검은 표지(表紙)를 열고 들어서면
 10 아비규환(阿鼻叫喚)하는 화약(火藥)냄새 소용돌이,
 전쟁(戰爭)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연자색 안개의 베일 속
 파란 공포(恐怖)의 강물은 발길을 끊어 버리고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15 해후(邂逅)는 언제나 엇갈리는 초조(焦燥)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꿈길에서 지금 막 돌아와
 꿈의 이슬에 축축히 젖은 나래를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접는
 20 아가야!
 오늘은 어느 사나운 골짜기에서
 공포(恐怖)의 독수리를 만나
 소스라쳐 돌아왔느냐.

(정한모, <아가의 방>, 1965)